

제철 맞은 완도 매생이 가격 3분의 1토막

생산량 전년비 30% 늘어
재기당 3000원→1000원
어민들 수매·군납 등 요구

겨울철 날미 매생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어민들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완도군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지만 소비 촉진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부심하고 있다.

16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완도산 매생이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어민들이 소비 촉진, 수매 요구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완도군은 올해 약산·고금면 일대 306 어가에서 전년보다 생산량이 30% 가량 늘어나 2548t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매생이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조류가 급감한데다, 매생이 생산에 도움이 되는 적정 수온(9.5~10도)이 유지되면서 전년보다 생산량이 증가, 산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완도군 분석이다.

전년도만 해도 2500~3000원 하던 재기



매생이를 수확하고 있는 어민. <완도군 제공>

당 산지가격은 지난 3일 기준으로 1000원~1300원까지 떨어졌고 수확이 본격화되면서 다음주에는 700~1000원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어민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어른 주먹 크기의 매생이 한 덩이를 1재기라 부르는데, 1재기는 국으로 끓일 경우

3~4인분에 해당한다는, 380g 정도의 양이다.

이 때문에 매생이 생산이 제철을 맞았음에도 어민들은 제 가격을 받지 못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고금·약산 일대 매생이 생산 어민들은 이같은 점을 감안, 지난 4일 완도 금일수

협 고금지점에서 간담회를 갖고 매생이 수매, 군납 등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수협측은 자칫 수매 뒤 냉동보관했다가 유통할 경우 가격 하락 현상으로 이어질 우려 등을 들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도군도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소비촉진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공급 과잉을 막을 생산량 조절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울 바닷바람을 뚫고 채취하는 매생이는 순수한 우리말로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는 뜻이 있다.

조류가 완만하고 물이 잘 드러나는 해안에서도 맑고 청정한 바다에서만 생산되는 무공해 식품으로, 기관지 건조함을 막아주고 요오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혈액순환과 피로해소를 돕는다.

알코올 분해 효능이 뛰어나 숙취 해소에 좋고, 칼슘과 철분 성분이 풍부한 식물성 고단백 식품이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진도 한라봉 '황금봉' 새 소득작목 자리

올 23농가 10억여원 소득

도로 높은 것을 확인했다.

진도군이 한라봉을 '진도 황금봉' (사진)이라는 상표로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진도군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역 특산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16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대표 특산물인 진도 대파에 걸쭉 한라봉의 재배 면적당 소득이 높다는 점을 감안, 본격 재배에 나섰다.

여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연간 1200여 시간 많은 일조량, 적당한 강수량, 해양성 기후 등 재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진도군 분석이다. 당도도 최근 한라봉 수확 결과 13~15°Bx에 달할 정

진도군은 지난 2008년 1농가(0.08ha)를 시작으로 올해 23농가(5ha)로 재배 농가를 늘린 데 이어 당도 13브릭스 이상, 일정 크기 이상 규격 과일만을 출하하도록 하는 등 품질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한라봉의 상품종인 진도 황금봉은 속이 빈틈없이 딱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퇴비를 사용해 재배한 무농약 과일로, 과즙과 비타민C가 풍부하다.

소비자 직거래 방식으로 3kg 상자 2만 8000원, 5kg 상자 4만 5000원에 판매중이다. 진도군은 올해 약 48t을 생산해 10억여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해남문화회관 25·26일

연극 '옥탑방 고양이' 공연

연극 '옥탑방 고양이'가 해남 관객들과 만났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옥탑방 고양이 공연이 오는 2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인기소설을 각색한 옥탑방 고양이는 지난 2010년 초연이후 6년 연속 인터넷 연극 예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연극이다.

옥탑방 고양이는 이중계약이 된 옥탑방 사이에 놓고 펼쳐지는 로맨틱 코미디물로, 지난 2003년에는 드라마로도 제작돼 4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예매는 오는 18일 오전 8시 40분부터 문화예술회관 로비에서 실시한다. 관람료는 5000원.

/해남=박희석기자 dia@



완도항에 전복 조형물 완도군이 국내 최대 전복 주산지인 상항항 전복 조형물을 제작했다. 최근 완도항 여객터미널에서 제막식을 갖고 선보인 전복 상징조형물(폭 2.5m·높이 4.25m)은 완도 전복의 우수성과 완도 방문객들에게 황금 전복의 기운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2억3000만원이 제작비로 쓰였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군 '배달 강좌'...주민 10명 요청하면 찾아갑니다

지역민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강의하는 '배달 강좌'가 올해도 열린다.

해남군은 올 상반기 111개팀 1350명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강사가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늘찬배달강좌'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시작한 '땅끝누리 늘찬배달강좌'는 지역민 10명 이상만 모이면 강

사가 찾아가 강좌를 진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서비스로, 지금까지 총 541팀 680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배달강좌는 교육 여건이 어려운 면단위 취약 지역의 주민과 강의 시간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직장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평소 듣고 싶었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해남군은 올 상반기 건강·체육·미용, 음악·국악, 미술·공예, 언어 등 분야에서 배달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노래교실, 판소리 등 음악·국악 분야와 캘리그라피, 라이스클레이 등 미술·공예 분야 신청자가 많았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해남 동계 스포츠 전지훈련 열기 후끈



우슬체육관에서 레슬링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 <해남군 제공>

해남이 동계훈련지로 인기를 끌면서 스포츠인들로 북적대고 있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골프 전지훈련팀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693명의 스포츠 선수들이 해남을 찾아 동계전지훈련을 실시했다.

종목별로는 축구(12개팀 265명), 레슬링(120명), 육상(111명), 농구(80명), 펜싱(45명), 야구(19명) 선수들이 찾았고 이달에도 육상(50팀), 근대 5종(10팀), 테니스(3팀) 등 선수단의 전지훈련이 예정됐다.

특히 전국에서 100개 넘는 팀이 참가하는 축구 초·중등부 스토브리브를 비

롯해 펜싱과 배구, 검도 스토브리브가 잇따라 개최되는 등 해남 곳곳이 스포츠 열기로 뜨거울 전망이다.

해남군은 2017~2018 동계시즌에 12개 종목 354개팀 6700여명의 선수단이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인원으로는 5만 7000여명에 이른다는 게 해남군 설명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45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해남군은 온화한 날씨와 맛있는 음식, 스포츠시설 확충, 대외 홍보 등이 맞물리면서 동계 전지훈련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리치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

-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593외 6필지
- 펜션, 체험장, 캠핑장, 전원주택, 수련원 옆 미술관, 커피숍, 별장 가능 1,800㎡(5,000평)
- 설산바위와 설산저수지(가운데 토지)
- 대형차량 출입가능, 조망 좋은 남향

● 매매가 8억원

매매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608-12 4개필지, 893㎡(전), 단독주택 가능 전원생활 하실분, 화순CC 옆, 남향 바로 앞 물이 흐름

● 매매가 6천만원

부동산 매매

-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산26-1외 2필지
- 전원주택, 편백숲, 택지분양, 캠핑장·텐트촌, 체험장 가능 30,000㎡(9,000평)
- 대형차량 출입가능
- 달맞이 공원에서 50m

● 매매가 7억원

주인 직거래 010-4602-9264 / 010-4013-2880